

[종합]

鄭 ‘대세론’ VS 孫 ‘1위 탈환’ VS 李 ‘대역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세 후보는 29~30일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에서 대격돌한다. 신당은 내달 6,7일로 예정된 대전·충남·전북과 인천·경기 경선, 같은 달 13,14일 대구·경북과 서울 경선 등을 앞두고 있고 모바일(휴대전화)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라는 변수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주말 4연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이다.

■신당 경선 사활 건 ‘주말 슈퍼 4연전’

鄭 “호남 지지율 업고 1위 굳히기”

孫 “민주당 출신 적극 참여 상승세”

李 “친노 단일화 위력 막판 뒤집기”

◇판세 전망=광주·전남 선거인단은 24만여명(광주 11만, 전남 13만)이다. 선거인 모집 규모에서는 정 후보 측이 다소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승리의 관건은 투표 참여에 있어 선부른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추진 전에는 정 후보 측이 다소 앞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추세를 전후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적극적 경선전 참여로 힘을 얻은 손 후보 때문에 양 후보 간 치열한 선두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후보가 치열하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무난한 1위를 예상하지만, 막바지 변수라면 손 후보 지지에 나선 민주당 출신 당원들의 지원 정도”라고 말했다.

손 후보 측 윤영국 상황실장은 “이명박 후보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 신당이 도로 열린(우리)당이 돼서 안 된다는 점이 선거인단 속에 퍼지면서 추석 이후 광주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윤호중 의원은 “27일 합동연설회를 통해 광주 민심이 직접 호소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며 “광주·전남은 이 후보와 정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호각각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등 당 지도부가 2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휴대전화 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위경림기자 jrwi@kwangju.co.kr

21만여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부산·경남 경선의 경우 친노주자 단일화를 거친 이 후보가 앞설 것이라 관측 속에서 조직력의 정 후보와 선거인단 대상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는 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향후 시나리오=정 후보는 광주·전남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 ‘신대세론’을 굳히고 다음주말 열린 전북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손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이기거나 선전할 경우 향후 전북과 수도권 경선까지 영향을 미쳐 역전의 동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도 선전하지 못하면 향후 경선가도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선전하고 부산·경남에서 1위를 하면 다음달 6일 대전·충남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금주말 경선에서도 3위를 할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 등 지도부는 28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휴대전화(모바일) 투표 시연회를 갖고 모바일 투표 띄우기에 적극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기아차, 중국 생산 확대 광주공장 영향 없나

기아차가 다음달부터 중국 현지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스포티지를 생산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포티지는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주력 차종이어서 중국생산이 광주공장은 물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아차는 그동안 광주공장에서 스포티지를 생산, 중국에 수출해왔으나 앞으로는 중국 현지공장을 통해 중국 내 판매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스포티지를 주력 차종으로 육성해온 광주공장으로서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아차는 현재 중국 내 스포티지 수입 물량이 연간 3천~4천대에 불과해 광주공장의 생산계획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스포티지의 중국 현지 생산은 광주공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생산물량의 75%를 수출하고 있는

광주공장으로서의 해외시장에서 중국산 스포티지와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의 스포티지 중국 현지 생산은 최근 삼성전자가 생활가전 공장의 해외 이전설과 함께 지역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 두 공장이 수익성 악화와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주력 품종과 일부 생산인원을 해외로 이전한다면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기아차와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광주를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생활가전 공장의 행보를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 된다. 자칫 지역 제조업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노사문화 개선 등 친 기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노인 등치는 건강상품 ‘사기’ 엄단해야

노인들을 꼬드겨 건강상품을 비싼 값에 파는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등에 접수된 건강상품 관련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판매 수법은 다양하다. 공짜관광을 시켜준다면 노인들을 사승능장 등으로 유인한 뒤 건강식품을 파는가 하면 무료 공연이나 사은행사를 내세워 물건을 팔고 있다. 경품에 당첨됐으니 쌀값에 상품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도 상당수에 달한다. 경로잔치를 핑계로 노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악덕 상술은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인들은 ‘공짜’ ‘당첨’ 등의 유혹과 판매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쉽게 말려든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 속

아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등을 별로 의심하지 않게 된다.

악덕 상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심각하다. 계약금을 떼이는 것은 물론 반품도 쉽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까지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속았다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론 아들딸 딸들과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악덕상술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오히려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주변에서 노인들의 건강상품 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다.

노인들을 등치는 악덕상술은 근절해야 한다. 노인들이 충동구매를 자제하는 등 주의해야겠지만 사회적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당국은 ‘공짜 판매’ 등의 유혹과 판매원의 현란한 말솜씨에 쉽게 말려든다. 건강에 좋다는 말에 속

“이명박, 부시 만나다”

내달 방미...野 대선 후보론 처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다음 달 1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을 면담한다.

박정호 대변인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후보가 다음달 14일부터 17일 전후까지 미국을 방문해 현직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앨리스 버넷 백악관 의전실장이 오늘 공식문서를 통해 이 후보와 부시 대통령의 면담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부시 대통령을 만날 경우 야당 대선후보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을 면담하는 셈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도 당내 경선 이전인 1월 미국을 방문을 방문했지만 부시 대통령을 만나진 못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올연말 대선을 약 2개월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향후 대선정국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내달 초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핵문제 및 6자회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한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 “광주은행 매각 타당성 없다”

인수 추진 지역 상공인들 “당혹·실망”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이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측 결론이 내려졌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는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광주은행·경남은행을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매각심사 소위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지역 상공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은 타당성이 없다는 쪽

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해 해당 지역 상공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부의 요청에 대해 금융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울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우리금융지주에서 분리해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해온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지역 상

공인들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상의 문덕형 상근 부회장은 “두 지방은행에 대해 분리매각 여론이 많아 이날 회의의 결과를 주시했다”며 “정부가 매각은 커녕 상공인들이 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실망과 함께 당혹스러움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공인들이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하려는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태동한 은행인 만큼 지역 상공인들이 직접 경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 신입사원 채용 줄인다

하반기 3,200명 채용 그쳐

삼성그룹의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대폭 줄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올 하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3천200명을 새로 뽑기로 해 상반기 채용인원 3천550명과 합하면 올해 전체로 6천750명을 신규 채용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의 8천450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준으로 삼성측은 “예년에는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신규 채용규모를 실제 필

요인원보다 좀 더 여유있게 잡았으나 올해는 꼭 필요한 인원만 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용인원이 줄어든 것은 결국 그룹 주력인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전기, 전자 계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올 들어 국제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2·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이하로 떨어진 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국제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CJ, 밀가루 13~15% 인상

라면·빵 등 도미노 인상 우려

최근 세계 원곡 가격 급등에 따라 국내 밀가루 값도 인상돼 라면 등 주요 식품 가격도 잇따라 오를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28일 밀가루 제품의 출고가격을 13~15% 인상했다. 20kg 기준으로 강력분은 1만2천760원에서 1만4천410원, 중력분은 1만2천300원에서 1만3천640원으로 13%씩 올랐다.

이에 따라 밀가루를 주원료로 한 라면, 빵, 제과 등 식품의 가격 인상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신정아 대기업 돌며 “5억 내놔라”

검찰, 변·신 후원금 공모에 주목

변양권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28일 신씨가 대기업을 돌며 거액의 미술관 후원금을 요구한 뒤 변 전 실장이 나중에 액수를 흥정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 대기업들을 돌며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연간 5억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씨가 이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의 이름을 팔고 다닌 사실을 신씨와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신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했으며 변 전 실장이 나중에 기업 관계자와 접촉해 후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씨는 변 전 실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임을 강조하며 대우건설에 5억원을 요구했고 변 전 실장이 나중에 4억원을 깎아 1억원의 성곡미술관 후원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의 후원금 모집을 두고 신씨와 변 전 실장의 공모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후원금의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횡령)가 일부 확인된 만큼 횡령 자금이 변 전 실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변 전 실장을 8번째 소환해 대기업 후원금 유치, 흥덕사 등 사찰에 대한 고고지원 등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 부분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신씨는 이날 소환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동국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고고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예산 관련 학내 부서 사무실과 동국대 재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성곡미술관 사무실과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실시했다. /연합뉴스

광주국제청장 김정민씨 본청법인세국장 정병춘씨 국세청 인사



김정민(57·사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인 오는 10월1일자로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신임 김청장은 김진 출신으로 안양·송파 세무서장과 국세청 심사 2과장, 광주지방국

세청 조사 2과장 등을 지냈다. 정병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29일 위촉한 광

주청 조사1과 1과장을 광주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하는 등 복수직 4급 12명과 5급 21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명단 4면> /이종태기자 jilee@

‘9급에서 청장까지...’ 40년만에 금의환향

‘강진 출신’ 김정민 광주국제청장

김정민(57)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이력이 지역 관가의 화제다. 김 청은 9급 말단 직원으로 임용된 뒤 40여년 만에 호남지역 세정 사령탑으로 금의환향했다.

9급으로 시작해 광주국제청장으로 부임한 경우는 지난 2004년 오재구 청장에 이어 김 청장이 두번째다.

강진에서 태어난 김 청장은 광주고를 졸업하던 지난 1968년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첫발을 내디딘 뒤 공직생활 대부분을 호남지역에서 보냈다. 김 청장은 지난 1998년 중앙으로 진출, 본청과 수도권 일선 세무서장 등을 거쳐 국세청 심사 2과장 재직시 부이사관으로 승진

했다.

2006년 광주국제청 조사 2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고위공무원단 승진과 함께 서울청 조사 2과장으로 부임한 후 4개월여 만에 광주청장으로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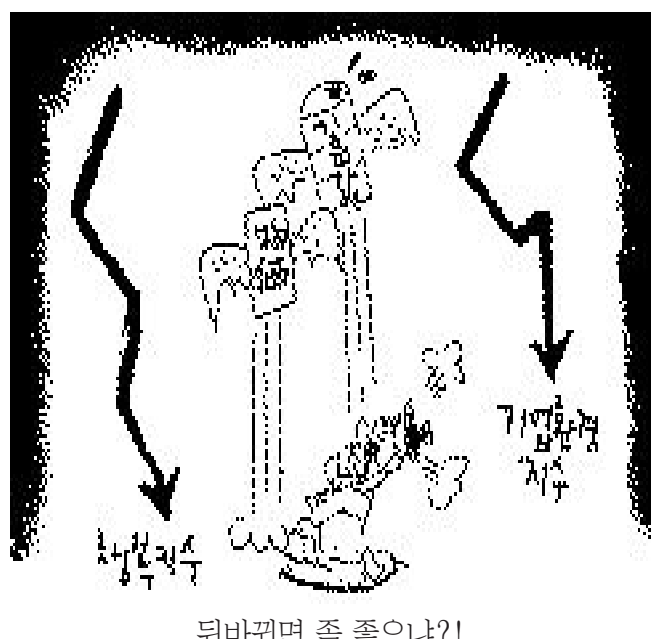
김 청장은 지역을 겸비한 외유내강형으로 법인·조사·심사업무 등을 두루 섭렵해 세정업무에 밝은 관리자로서 정평이 나왔다. 또 일 욕심이 많으면서도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 상하간 신망도 두텁다.

특히 국세청 심사 2과장 시절 부실과세를 고지 전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개선, 납세자 권리 구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뒤바뀌면 좀 좋으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